

“화학기술의 원자력산업 적용” 심포지움

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9월30일 유성구 덕진동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원자력 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상호 교류 및 융합을 위한 '제3회 화학 및 분석기술의 원자력 산업 적용 심포지움'을 개최할 계획이다.

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중국 칭화대 리 준(Li Jun) 교수,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소 미카 호라체크(Micha Horacek) 박사, 국제원자력기구(IAEA) 김철수 박사,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(JAEA) 고야마 신이치(Koyama Shin-ichi) 박사,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의창 박사, 경희대학교 박광현 교수, 단국대학교 임홍빈 교수 등 국내외 원자력 화학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 강사로 나선다.

심포지움은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탐지 기술, 계산화학법을 이용한 악티나이드 특성 연구, 원자력 화학, 핵 연료 주기, 폐기물 처분 등을 주제로 7건의 초청 강연과 30여건의 논문 발표로 진행된다.

<화학저널 2011/09/28>